

비운율 단위로서의 음절

김 선 희

(연세대학교)

1. 서론

언어학적 단위로서의 음절에 관한 인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p103)으로 거슬러 올라 가는데, 근세에 와서도 음절은 언어학자들에 의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 중 하나이다(cf. Hjerlmslev 1939, Selkirk 1982, Clements & Keyser 1983). 생성 음운론의 범주(Chomsky & Halle 1968)에서 음절은 그 존재가 잠시 잊혀졌다가 Kahn(1976)에 와서 다시 음운론 연구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그 정의나 일반적인 특성은 정립되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Kahn(1976) 이후 자립 분절 음운론(Autosegmental Phonology)과 울격 음운론(Metrical Phonology), 혹은 복선 음운론(Multi-linear Phonology: McCarthy 1982, van der Hulst & Smith 1982, Dell & Vergnaud 1984)이라 불리우는 표기(representation) 이론의 발전과 함께 음절은 다시 음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cf. Clements & Keyser 1983).

음절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Saussure 1915, Bloomfield 1933, Hjerlmslev 1939, Trubetzkoy 1969, Jakobson 1963, Ladefoged 1975)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됨을 볼 수 있다.

- (1) a. 음향적 특성
- b. 생리적 조음적 특성
- c. 음절성(syllabicity)
- d. 음절의 표기 문제(Halle & Vergnaud 1978, Feinstein 1979, McCarthy 1979, Prince 1980, Selkirk 1982, Steriade 1982, Kaye & Lowenstamm 1984, Levin 1985, Dell & Elmedlaoui 1985, Itô 1986)
- e. 음운론 내부에서 음절의 지위 문제

위의 문제는 결국 음절의 특성과 그 표기 문제(a-d), 그리고 음운론 내부에서 음절의 지위 문제(e)의 둘로 나뉘는데, 음절의 특성과 그 표기 문제는 이 글의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어 지겠고, 음절의 지위에 관해서, 여기에서는 음절이 운소 연쇄의 분포에 관한 제약조건(phonotactic constraints)으로서, 여러 음운론자들의 주장(Hjerlmslev 1939, Selkirk 1982, Itô 1986, McCarthy & Prince 1986)과는 달리 운율(prosody)과는 독립적인 하나의 구조 단위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상정한다. 즉, 음절은 언어에 따라 혹은 운율 단위로서, 혹은 비운율 단위로서, 혹은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지는 다음에서 살펴 볼 우리말의 경우에서 음절이 운율과는 관계없는 비운율 단위로 기능하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본고는 음절의 특성과 표기의 문제를 복선음운론의 범주에서 고찰하고, 이에 따라 국어의 음절구조는 어떻게 나타내어 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음절이 운율과는 독립적인 단위라는 위의 가정을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먼저, 이 글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자질 위계 이론(Feature Geometry:

Clements 1985, Kim 1990)과 음절이론(Itô 1986, Clements 1988, 1989, Kim 1990)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에 근거하여 우리말의 음절구조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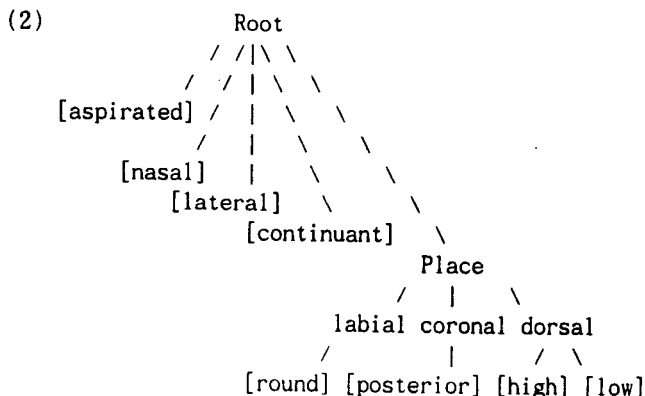
2. 이론적 배경

2.1. 자질 위계 이론

자질 위계 이론은 복선 음운론을 기반으로 한 분절음(segment)의 내부 구조에 관한 이론으로서, Clements(1985), Sagey(1986), Mester(1986)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 Clements(1985: 225-227)에 의하면, 음운 분석에 있어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자질들은 그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일종의 위계 구조를 가진 형태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으로, 이때, 하나의 분절음은 통사론에서 이용되는 것과 유사한 수형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구조는 자질군 간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에 의해 특히 정당화된다. 예를 들면, 동화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류의 규칙들에 관해서 어떤 자질군들이 항상 한 단위로 기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자질군들이 음운 표기 상에서 하나의 단위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자질들의 구성은 Clements(1985)가 제한한 것처럼 각각의 자질이나 자질군이 독립된 층위(tire)를 갖는 복선 구조로 가장 잘 나타내어 질 수 있다.

자질 위계 구조상의 말단 마디(terminal node)에 관해서는 Clements(1985)나 다른 음운론자들(Archangeli 1985, Schein & Steriade 1986, Yip 1988, Pulleyblank 1988)이 Chomsky & Halle(1968)나 Jakobson과 같이 '+'나 '-'로 나타내는 이원론적 자질 체계의 고전적인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반해, 여기에서는 Archangeli(1988)의 급진적 미명시 이론(Radical Underspecification)에 착안하여, 말단 마디(비말단 마디도 마찬가지)를 '+'와 '-'로 나누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디가 존재하는 지 그렇지 않은 지로 나타내는 방법을 채용한다. 예를 들면, /p/와 /b/의 경우 두 분절음은 [voice] 자질에 있어서 /p/는 [-voiced], /b/는 [+voiced]를 갖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수형 구조를 갖는다고 하는 대신에, 이 두 분절음이 갖는 수형 구조의 차이는 /p/는 Laryngeal 마디가 비어 있는데 반해 /b/는 Laryngeal 마디가 [voiced] 마디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다. 즉, /p/의 비유성음 특성을 [voiced] 마디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한다. 원칙적으로 분절음에서 '+'의 가치가 하나(혹은 그 이상)의 조음 작용이나 하나(혹은 그 이상)의 청각 인상을 나타낸다면(Clements 1985: 227), '-' 가치는 규칙 기술에 있어서 그 나머지 분절음들을 표시하기 위한 구실만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Sagey(1988)에 착안하여 우리말 분절음의 내부 구조 수형도를 다음과 같이 상정한다.



(2)에서 coronal 마디 아래에 [anterior] 대신 [posterior]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주목하자. 이 [posterior] 자질을 [anterior] 자질 대신 사용하는 것은 “-” 가치가 나타나지 않는 표기법에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¹⁾. 또, (2)의 수형도와 Sagey(1988)과 차이점은 (2)에서는 Laryngeal 마디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로 차이점이 아니라 Sagey(1988)가 채택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즉, 우리말의 경우, 경음을 평음의 쌍음이라고 가정하면²⁾, Laryngeal 마디는 [aspirated]만을 지배하는

1) Trubetzkoy(1969: 90)에 의하면 음운론적인 대립은 결여적인(privative), 점진적인(gradual), 그리고, 대등한(equipollent) 세가지의 특성으로 나뉜다. 우리말 분절음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자질 가운데 대등한 특성을 가진 것은 [anterior]로서 [posterior]와 바꾸어 사용될 수 있다.

2) 우리말에서 경음이 평음의 쌍음(geminate)라는 가정에 관해서는 음성학적 논거(Pyo-Ih 1973, Zhi 1982) 외에 다음의 두 가지 음운론적 논거를 들 수 있다(우리말의 자모음 목록을 위해서는 주 4) 참조). 첫째는, /h/가 사라질 때 비음이 쌍음화되는 환경에서 마찰음이 경음화한다:

a. /nah-nun/	[nannun]	‘낭-는’	b. /nah-sʌp/	[nasʌp]	‘낭-습’
x x x x x x			x x x x x x		
# \			# \		
n a h n u n			n a h s u p		

둘째는, 동사 어미의 자음군이 음절화되는 과정에서 단자음으로 실현될 때, 뒤따르는 저해음이 경음화한다(자세한 논의는 Kim(1990) 참조).

/nalp - ta/	[nalʰtʰa]	‘냅-다’
x x x x x x		
# \		
n a l p t a		

이와같이, 경음이 평음의 쌍음이라는 가정은 음운론적으로 증명되는데 반해, 비록 격음이 음성학적으로는 경음보다도 길게 실현되는 것이 관찰되나(Pyo-Ih 1973, Zhi 1982), 음운론적으로 격음을 쌍음으로 간주할 수 있는 논거는 아직까지는 없다. 더구나, 우리말의 격음을 쌍음이라고 한다면, 쌍음인 경음은 그에 상응하는 단음인 평음이 존재하는데 반하여, 쌍격음에 상응하는 단격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 언어에서 충분한 음운론적 논증이 없이 상응하는 단음이 없는 쌍음만을 가정하는 데에는 다른 제약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말에서 경음을 쌍음이라고 가정하는 경우는 격음도 마찬가지로 쌍음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음성적인 사실에 그 근거

class node가 되는데, 이는 Sagey(1988)에 Manner나 Supralaryngeal 마디가 아무런 기능을 갖지 않으므로 나타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유로 생략된 것이다(cf. Clements(1985)).

2.2. 음절이론

음절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 가운데 본고는 Itô(1986)와 Clements(1988, 1989)에 착안하여, 음절을 보편 조건(universal condition)과 개별 조건(particular condition)으로 이루어지는 적격조건(well-formedness condition)으로 나타낸다.

보편 조건으로 Clements(1989)는 다음의 두 법칙을 제시한다.

(3) 보편 조건(Clements 1989)

- a. 공명성의 법칙(Sonority Principle): 음절핵에 가까운 자음일수록 그 공명도가 높다(cf. Selkirk 1982, Steriade 1982, etc.).
- b. 초성 최대의 법칙(Maximal Onset Principle): 주어진 언어의 기본 구조를 규정하는 법칙에 상응하여 초성이 최대가 된다. 즉, VCV는 VC-V가 아닌 V-CV로 음절화(syllabification)된다(cf. Itô 1986, etc.).

공명성의 법칙은 음절의 내부구조에 관여하고, 초성 최대의 법칙은 음절간의 연쇄에 관여한다. 이러한 두 보편 법칙에 따라 음절은 모형(template)으로 나타낸다. 음절 모형(syllable template)은 주어진 언어에서 가능한 연쇄를 결정하는 일종의 적격 조건이다.

표기상에 나타나는 요소들에 관한 제약조건으로는 Prince(1985)의 최대의 법칙을 받아들인다.

(4) 최대의 법칙(Maximality Principle): 형태에 관한 다른 제약 조건의 범주에서 단위들은 최대 형태를 나타낸다.

(4)의 최대의 법칙에 따라 음절 모형은 가능한 최대의 연쇄를 나타내므로, 그보다 덜 복잡한 연쇄도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언어의 음절 모형이 CV이면, 이 언어에서는 V와 CV의 두 유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복선 음운론의 범주에서 음절 모형은 음절 마디에 지배되는 시간층 위에 나타낸다. 예를 들면, 우리말의 음절 모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³⁾.

(5) 음절모형

σ	σ : 음절(syllable)
/ \	O: 초성(onset)
O P C	P: 중성(peak)
/\ /\	C: 종성(coda)
x x x x x	

를 둔 것으로(Kim: 1986), 여기에서는 음운론적인 근거가 있는 경음만을 쌍음으로 표기하고 격음은 단음으로 표기한다.

3)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 장을 참조.

음절의 구성 요소에 관해서는 Selkirk(1982)를 받아 들여, 초성(onset), 중성(peak), 종성(coda)으로 나타낸다. 이 세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는 여기에서는 문제삼지 않고 모두 동등한 관계(noeud soeur)로 나타낸다.

개별 조건은 언어에 따라 다양한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6) 개별 조건

- a. 음절성(syllabicity)
- b. 모음 충돌 회피(hiatu)
- c. 외운율성(extraprosodicity)
- d. 음절 구성 요소에 관한 제약

음소의 음절성은 언어에 따라 다르다. 즉, 음절성은 어휘적(lexical)이다(cf. Trubetzkoy 1958, etc.). 모음 충돌 회피는 음절화에 관한 현상으로 Dell & Elmedlaoui(1985)는 이것이 공명성 위계(sonority hierarchy)와 함께 베르베르어의 하나인 Chleuh d'Imdlawn의 방언에서 음절화를 규정하는 제약이라고 한다. 외운율성은 음절화 과정에서 어두나 어말에 부가적인 시간 단위를 허용하는 언어에서의 제약이다(cf. Itô 1986, McCarthy & Prince 1986, Kaye & Lowenstamm 1986, etc.).

이 세 경우 외에 음절 구성 요소, 즉, 초성, 중성, 종성에 관한 제약이 개별 조건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우리말에서 /ŋ/이 초성으로는 실현되지 않는 제약을 조건으로 나타낸 것이다.

(7) 초성 조건

* 0
|
x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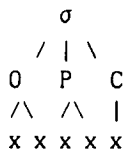
요약하면, 음절은 보편 조건과 개별 조건으로 정의 되는데, 보편 조건으로는 공명성의 법칙과 초성 최대의 법칙으로서, 이 두 법칙은 음절 모형으로 구체화 된다. 개별 조건으로는 언어에 따라 음절성, 모음 충돌 회피, 외운율성, 음절 구성 요소에 관한 여러 제약들 등이 가능하다. 즉, 주어진 언어의 음절 구조는 음절 모형과 개별 조건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음절의 정의에 따라, 음절화는 소리 연쇄에 음절 모형을 맞추는(matching)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맞추기 과정에서 연결되지 않은 요소들은 잔여 삭제(Stray Erasure)와 잔여 삽입(Stray Epenthesis)의 적용을 받게 된다(Itô 1986).

3. 국어의 음절 구조

이미 위에서 제시한 우리말의 음절 모형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8) 음절모형



σ : 음절(syllable)

O: 초성(onset)

P: 중성(pea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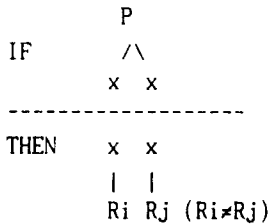
C: 종성(coda)

우리말에서 한 음절은 하나의 모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중모음의 경우는 반모음이 부가된다. 음절로서 가능한 최대의 연쇄를 나타내는 음절 모형이 (8)과 같을 때, 다음은 우리말에서 가능한 음절 유형의 예이다⁴⁾.

(9)	a. i	'이'	b. il	'일'
	c. yo	'요'	d. yal	'열'
	e. so	'소'	f. sok	'속'
	g. kya	'겨'	h. kyal	'결'
	i. k'ε	'깨'	j. s'ak	'씩'
	k. p'ya	'빠'	l. k'wak	'팍'

우리말의 장모음에 관해서는 논의가 분분한데, 본고에서는 장모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입장은 중성이 두 단위를 지배하는 경우에, 이는 동일한 뿌리마디(root node)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다음과 같은 제약으로 나타낼 수 있다.

(10) 중성 조건



이러한 조건은 중성이 두 단위를 지배하는 경우, 그 중 하나는 반모음인 이중모음의 경우가 되는 것이다. 이때, 변별 자질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모음 /i/는 반모음 /y/와 같은 구조를 갖고, 마찬가지로 모음 /u/는 반모음 /w/와 같은 구조를 가지므로, 이중성 조건은 실제로 장모음이나 /yi/나 /wu/와 같은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과도 합치한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고모음(/i, u/)의 음절성은 어휘적이다. 즉, 한 형태소에서 반

4) 다음은 우리말의 자음과 모음 목록이다.

자음 : p	t	s	c	k	모음 : i	u
p'	t'	s'	c'	k'	e	a
ph	th	ch	kh	h	ε	a
m	n		ŋ			
l						
w	y					

여기에서 우리말 저해음은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평음(C)과 경음(C'), 그리고 격음(Ch)으로 나뉜다.

모음은 고모음과 구별된다. 아래는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예이다.

(11)	a.	ius	[i.ut]	*[yut]	‘이웃’
	a’.	yuch	[yut]		‘윗’
	b.	ia	[i.a]	*[ya]	‘이어’
	b’.	yawi	[yawɪ]		‘여위’
	c.	oi	[o.i]		‘오이’
	c’.	oyas	[oyat]		‘오얏’
	d.	uaŋ	[u.aŋ]	*[waŋ]	‘우엡’
	d’.	wanak	[wanak]		‘워낙’

그러나, 동사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 모음 /i/는 /y/로, 또, /u/는 /o/나 /w/로 각각 실현된다.

(12)	a.	/pali-A/	[palya]	‘버리-어’
	b.	/chu-A/	[chua/chwə]	‘추-어’
	c.	/po-A/	[poa/pwa]	‘보-아’

위에서 상정한 음절 모형 (8)에 의하면 초성의 위치에 우리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음군을 허용하므로, 초성의 위치에 자음군은 허용하지 않고 경음만을 허용하는 제약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제약도 역시 조건으로 나타내는데, 이미 위 (7)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말에는 또다른 초성 조건이 있으므로, 편의상 (7)은 다시 ‘초성 조건 1’이라 부르고(13), 초성의 위치에 자음군은 허용하지 않고 경음만을 허용하는 제약은 ‘초성 조건 2’라 하여 다음 (14)와 같이 나타낸다.

(13) 초성 조건 1

```

*  0
   |
   x
   |
   0

```

(14) 초성 조건 2

```

      0
IF    /\
-----
THEN  \/
      R
      /\
[cont] Pl
      /\ | \
      lab cor dor
      |
      [post]

```

(14)의 초성 조건도 역시 최대의 법칙 (4)에 부합하므로, 초성이 두 단위를 지배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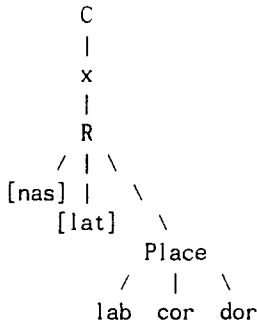
경우에는 모든 자음군이 제외될 뿐만아니라, (2)의 수형도로부터 [asp]와 [nas], 그리고 [lat] 자질을 가지는 분절음들도 제외된다. 즉, 이러한 자질을 갖는 분절음들의 쌍음은 초성으로 실현되지 않는다⁵⁾.

또, 음절화할 때, 경음이 두 모음 사이에 위치할 경우에도, 하나의 x는 종성에, 또 다른 x는 초성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두번째 음절의 초성이 되어야 한다. 이는 아래의 예와 같이 경음 앞에 또 다른 자음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 (15) a. soms'i '숨씨'
b. kuks'u '국수'

우리말 자음 가운데 초성에는 /g/를 제외한 모든 자음이 가능한 반면, 종성으로는 /p, t, k, m, n, ŋ, l/의 일곱 자음만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중화(Neutralization)'라 불리우는 이 현상은 일종의 종성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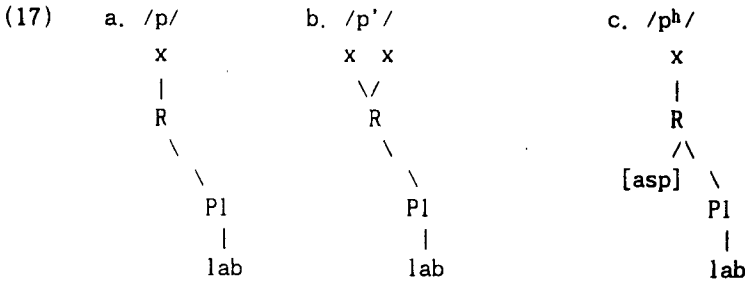
(16) 종성 조건



이 종성 조건 (16)은 음절 모형과 같은 모형으로 나타난 것으로, 종성이 되는 분절음은 (16) 수형도와 양립하는 구조, 즉, 이에 포함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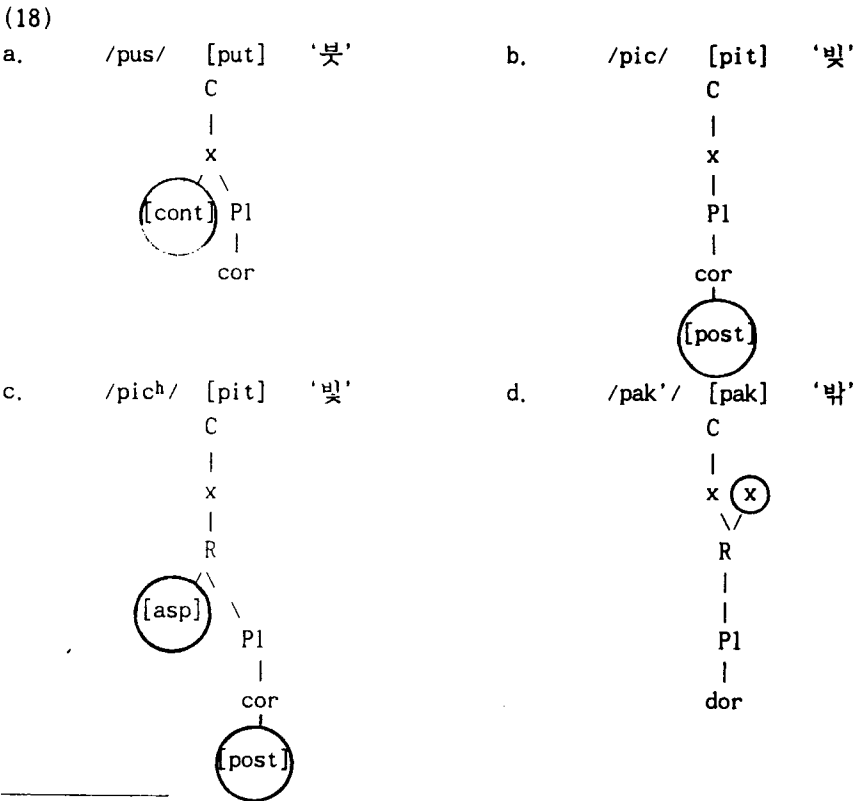
다음은 우리말의 평음 /p/, 경음 /p'/, 그리고 격음 /pʰ/을 나타낸 것인데, (17a)는 하나의 시간단위와 그에 연결된 R 수형도가 (16)에 포함되는 구조를 가져 (16)의 조건에 부합한다. 그런데, (17b)는 R 수형도가 (16)에 포함되는 구조를 가지나 시간단위들을 가져 (16)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음이 종성에 나타나게 되면, 조건 (16)에 부합되기 위해 하나의 시간단위가 사라지게 된다. 즉, 평음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17c)와 같은 격음의 경우에는, (16)에 비해 더 가지는 [asp] 마디를 잃게 되어 마찬가지로 평음으로 실현된다.

5) 주 2)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말에서 쌍격음은 어떤 위치에서도 관찰되지 않으나, 비음이나 유음은 두 모음 사이에 올 수 있다. 예를 들면, /anni/ ('언니')나 /tulɛ/ ('둘레')가 있는데, 이때, 쌍음은 두 개의 음절로 음절화된다: [an.ni], [tul.ɛ].



중성 위치의 자음을 음절화하기 위해서는 그 자음의 수형도에서 조건 (16)에 부합한 구조를 얻기 위해 가능한 최소한의 마디를 잘라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잘려나간 마디는 특별히 다시 재결속되지 않는 이상 결속되지 않은 모든 요소에 관여하는 잔여 삭제에 의해 지워지게 된다.

다음은 중성 음절화의 예들로서, 조건 (16)에 부합하도록 삭제 대상이 되는 마디나 위치를 원으로 표시하였다. 원으로 표시되어 삭제되는 경우 그 나머지로 이루어지는 수형도가 표면형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18a)에서 /s/의 [cont] 마디를 삭제하면 다음아닌 /t/를 얻게 된다. 이 경우, 삭제는 독립적인 두 번의 과정을 거쳐 수행된다. (i) 중성 음절화(조건 (16))에 의한 절단과 (ii) 비결속 요소의 잔여 삭제이다⁶⁾.



6) 절단된 요소가 다시 다시 재결속되어 잔여 삭제를 피하여, 절단이 삭제에 후행되지 않는 경우에 관해서는 Kim (1990) 참조.

중화 현상을 종성에 위치한 분절음의 수형 구조에 가지치기를 한 결과로 보는 제안은 이미 Iverson & Kim(1987)에 의해서도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특별한 음운 규칙에 의해 수행된다고 한 반면에(190쪽 규칙 (14)), 여기에서는 보편 원칙인 잔여 삭제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음운 규칙을 상정하기 보다는 일반 원칙으로 설명하는 것이 주어진 현상에 더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이들의 제안은 Clements(1985)의 자질 위계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인데, 실제로 그들이 상정한 중화 규칙이 서로 관계 없는 두 개의 마디를 삭제하도록 허용함으로써, SPE 범주에서는 관계 없는 자질들이 음운 도출과정에서 하나의 단위로 기능하는 경우에 그 두 자질이 하나의 동일한 상위 마디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보는 자질 위계 이론의 기본적인 전제에 위배된다.

또, 위의 종성 조건 (16)은 종성 위치에 자음군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또다른 제약을 포함한다. 이제까지는 전통적으로 종성에 /p, t, k, m, n, ŋ, l/의 일곱 자음만을 허용하는 현상은 '중화 규칙'으로, 그리고, 자음군을 허용하지 않는 현상은 '자음군 간 단화(Consonant Cluster Reduction) 규칙'이라 하여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독립된 두 규칙으로 다루어 왔다(Lee 1973, Chung 1980). 그러나, 실제로 이 두 현상은 모두 같은 환경에서 관찰되는 하나의 음운과정으로서, 여기에서는 모두 종성 조건 (16)과 그에 따르는 잔여 삭제를 적용한 결과로 분석한다.

우리말에서 명사 어말에 나타나는 자음군으로는 /ps, ks, lm, lk, lp/의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ps/ 나 /ks/ 가 각각 /p/와 /k/로 실현되는 사실은 지속음보다는 폐쇄음이 종성으로 실현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종성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m/과 /lk/의 경우에 있어서도, 두 분절음 중 공명도가 낮은 소리가 종성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공명성의 법칙(3a)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위의 네 경우는 음절화의 보편 조건과 개별 조건에 부합하는 반면에, 두 분절음 가운데 공명도가 큰 /l/이 실현되는 /lp/의 경우는 어휘적 특이성(lexical idiosyncrasy)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이는 /lk/의 경우에는 /k/가, /lp/의 경우는 /l/이 실현되도록 허용하는 다른 메커니즘을 찾아 보기가 어려울 뿐더러, /lp/의 경우 하나의 실례('여덟')밖에 존재하지 않아 굳이 그 일반성을 정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종성 조건이 명사 어말에 오는 자음군에 적용되는 경우의 그림이다.

(19)

a. /kaps/ [kap] '값'

```

σ
/ | \
x x x x
| | | |
k a p s

```

b. /moks/ [mok] '몫'

```

σ
/ | \
x x x x
| | | |
m o k s

```

c. /salm/ [sam] '삼'

```

σ
/ | \
x x x x
| | | |
s a l m

```

d. /yatalp/ [yatal] '여덟'

```

σ      σ
/ \ / | \
x x x x x x
| | | | | |
y a t a l p

```

e. /hʷlk/ [hʷk] ‘흙’

```

σ
/ | \
x x x x
| | | |
h ʷ l k

```

4.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음절을 보편 조건과 개별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적격 조건으로 나타낸다는 이론에 따라, 우리말의 음절을 음절 모형(8)과 네 가지의 개별 조건, 즉, 두 초성 조건(13, 14), 하나의 종성 조건(10), 하나의 종성 조건(16)으로 정의했다. 이 가운데, 이전에는 개별적인 두 규칙으로 설명되던 두 가지의 현상, 즉, 종성의 위치에는 위에서 언급한 일곱 자음만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자음군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두 현상을 하나의 종성 조건과 보편 기제인 잔여 삭제로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음운 현상을 개별 규칙을 상정하는 대신에 보편 기제로 설명한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운율과는 관계없는 어떤 음운 현상을 음절 구조를 상정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음절이 운율과는 무관한 하나의 구조 단위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 결론적으로, 언어에 따라 음절은 운율 단위가 아닌 비운율 단위(non-prosodic unit)로서의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Archangeli, D. B. (1985) Yokuts Harmony: Evidence for Coplanar Representation in Non-linear Phonology, *Linguistic Inquiry* 16, 335-372.
- Archangeli, D. B. (1988) Aspects of Underspecification Theory, *Phonology* 5, 183-207.
- Aristote, *La Poétique*, Texte traduction/notes par R. Dupont-Roc & Lallot (1980), Edition du Seuil, Paris.
- Bloomfield, L. (1933) *Language*, Holt, New York.
- Chomsky, N. & M.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Row.
- Clements, G. N. (1985) The Geometry of Phonological Features, *Phonology Year Book* 2, 225-252.
- Clements, G. N. (1988) The Role of Sonority Cycle in Core Syllabification, *Working Papers of the Cornell Phonetics Laboratory* n°2, 1-68.
- Clements, G. N. (1989) Syllabification et traits de sonorité, *Séminaire donné à l'Université de Paris VII*, 26/5/89.
- Clements, G. N. & S. J. Keyser (1983) *CV Phonology: A Generative Theory of the Syllable*, MIT Press, Cambridge, Ma..

- Dell, F. & J.-R. Vergnaud (1984) Les Développements Récents en Phonologie: Quelques Idées Centrales, Dell, F., Hirst, D. & J.-R. Vergnaud (eds.), *Forme Sonore du Langage*, Paris: Hermann, 1-37.
- Dell, F. & M. Elmedlaoui (1985) Syllabic Consonants and Syllabification in Imdlawn Tashihyt Berber, *Journal of African Linguistics* 7, 105-130.
- Feinstein, M.H. (1979) Prenasalization and Syllable Structure, *Linguistic Inquiry* 10, 245-278.
- Halle, M. & J.-R. Vergnaud (1978) Metrical Structures in Phonology, ms..
- Hjerlmslev, L. (1939) The Syllable as a Structural Unit, *Proceedings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gress of Phonetic Sciences*, University of Ghent.
- Itô, J. (1986) *Syllable Theory in Prosodic Theory*, PhD.,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Iverson, G. K. & K.-H. Kim (1987) Underspecification and Hierarchical Representation in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in Bosch, A., B. Need and E. Schiller (eds.) *CLS 23: Papers from the 23rd Annual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Part Two: Parasession on Autosegmental and Metrical Phonology*, 182-198.
- Jakobson, R. (1963) *Essais de Linguistique Générale*, 2 vols., Editions de Minuit, Paris.
- Kahn, D. (1976) *Syllable-Based Generalization in English Phonology*, PhD., MIT.
- Kaye, J. & J. Lowenstamm (1984) De la Syllabicit , Dell, F. et al. ( ds), *Forme Sonore du Langage*, Hermann, Paris.
- Kaye, J. & J. Lowenstamm (1986) Compensatory Lengthening in Tiberian Hebrew, Serzer, E. & L. Wetzels (eds.), *Studies in Compensatory Lengthening*, Foris, Dordrecht, 97-132.
- Kim, J.-m. (1986) *Phonology and Syntax of Korean Morphology*, PhD.,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Kim, S.-h. (1990) *Phonologie des Consonnes en Cor en*, th se de doctorat,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Paris.
- Ladefoged, P. (1975) *A Course in Phonetics*, Harcourt Brace Javanovich, Inc..
- Lee, B.-G. (1973) *Underlying Segments in Korean Phonology*, PhD., Indiana University.
- Levin, J. (1985) *A Metrical Theory of Syllabicity*, PhD., MIT.
- Martinet, A. (1970). *El ments de Linguistique G n rale*, Armand Colin, Paris.
- McCarthy, J. (1979) Stress and Syllabification, *Linguistic Inquiry* 10, 443-466.
- McCarthy, J. (1982) Nonlinear Phonology: An Overview, Bennis, H., A. Groos & H. van Riemsdijk (eds.) (1982), *GLOW Newsletter* 8, Foris, Dordrecht.
- McCarthy, J. & A. Prince (1986) *Prosodic Morphology*, ms..
- Mester, R. A. (1986) *Studies in Tier Structure*, PhD., M.I.T., Cambridge, Ma..
- Prince, A. (1980) A Metrical Theory for Estonian Quantity, *Linguistic Inquiry* 11, 511-562.

- Prince, A. (1985) Improving Tree Theory, *Proceedings of BLS 11*,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Pulleyblank, D. (1988) Vocalic Underspecification in Yoruba, *Linguistic Inquiry* 19, 233-270.
- Pyo-Ih, J. (1973) Quelques Aspects Acoustiques des Occlusives Coréennes, *Travaux de l'Institut de Phonétique de Strasbourg* 5, 150-182.
- Sagey, E. C. (1986) *The Representation of Features and Relations in Nonlinear Phonology*, PhD., M.I.T., Cambridge, Ma..
- Sagey, E. C. (1988) Degree of Closure in Complex Segments, in van der Hulst, H. and N. Smith (eds.), *Features, Segmental Structure and Harmony Processes*, vol. 1, Dordrecht: Foris.
- Saussure, F. de (1915)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Payot, Paris.
- Schein, B. & D. Steriade (1986) On Geminate, *Linguistic Inquiry* 17, 691-744.
- Selkirk, E. O. (1982) The Syllable, van der Helst, H. & N. Smith (eds.), vol II 337-384.
- Sohn, H.-S. (1987) *Underspecification in Korean Phonology*, PhD.,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 Steriade, D. (1982) *Greek Prosodies and the Nature of Syllabification*, PhD., M.I.T., Cambridge, Ma..
- Trubetzkoy, N. S. (1939) *Principles of Phonology* (tr. C. Baltax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 van der Hulst, H. & N. Smith (eds.) (1982)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 2 vols., Foris, Dordrecht.
- Yip, M. (1988) The Obligatory Contout Principle and Phonological Rules: A Loss of identity, *Linguistic Inquiry* 19, 65-100.
- Zhi, M.-J. (1982) *Studies on the Phonetic Properties of Korean Obstruents*, Université d'Umea, ms..

